

대전에 불상미술관 생긴다

불상조각가 이진형씨, 2007년 완공



◇올해 완공된 80명 규모의 제 2전시실 외부(사진 위)와 내부 모습. 전시실에는 현재 크고 작은 불상 2백여점이 상설로 전시돼 있다. 앞으로 일반작가들의 작품 전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대전에 불상전문 미술관이 생긴다. 불상조각가 이진형씨가 대전시 유성구 탑동동에 불상을 한자리에 감상할 수 있는 여진미술관을 2007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자신의 법명을 딴 이 미술관은 현재 대지 6,300평에 무형문화재 전수실(150평)과 제 2전시실(80평), 학예연구실(65평)을 갖춘 상태다. 여기에 내년 11월까지 지하 1층과 2층 건물에 제 1전시실을 건립한다. 제 2전시실이 이진형씨의 작품을 비롯한 일반 작가들의 불상을 전

6,300평에 전시·연구·무형문화재 전수실 동산엔 부처님 전생설화 등 테마파크도



시할 예정이라면, 제 1전시실에는 국보와 보물급 불상을 모작(摹作)한 작품들을 전시한다. 비록 모작이지만 고증을 통해 철저하게 전통 양식의 기법을 따라 만들 예정이다. 특히 이 전시실에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현재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250여점 가운데 100여점을 선별해 일반인들이 우리나라의 불상양식을 시대별로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 관장의 생각이다. 여진미술관에서 가장 주목을 끌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야외 불상 박물관이다.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될 전통양식의 일주문을 따라 미술관 안으로 들어오면 오른쪽 동산에 오백나한상이 건립된다. 일종의 야외 나한전인 셈이다. 또 정면으로 보이는 동산에는 초전법륜상이 세워지며 주변에 '부처님일대기'와 '부처님 전생설화', '지장의 윤택세계'를 주제로 목조, 석조, 청동, PVC 동상이 테마파크의 형식으로 조성된다. 대략 야외 노천 불상박물관에는 1천여점이 전시된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전통불상 한자리 모아 불교포교에 한몫 서원"

이진형 여진미술관장

"우리나라의 전통 불상을 한 자리에 모아 일반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불교미술의 포교에 한 몫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진형 여진미술관장(50)은 불사의 동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이 관장의 이런 생각에 가장 큰 환영의 뜻을 보인 것은 가족들이었다. 특히 부산 동의대 조소과를 졸업한 장남 이재운(28)씨는 직접 이 관장의 일손을 거드는 등 미술관 건립에 팔을 걷어부쳤다.

대전광역시 지정문화재 보유자인 이 관장은 "몇년전 대만 불광산사를 방문했을 때 사찰 경내에 부처님 일대기를 테마파크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전시실 지하에 직접 불상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장금에 출연 중인 탤런트 지진희(사진 오른쪽)

MBC 화제의 드라마 '대장금'의 남자 주인공 민정호 역을 맡은 탤런트 지진희씨는 이날 조 전복 부안의 내소사에서 수행중인 한 스님으로

대장금 출연 지진희씨에 내소사, 달마도 기증

부터 달마도를 선물 받고 좋은 인연을 맺게됐다. 이 달마도는 1900년대 초반의 작품을 본뜬 것으로, 선물해 준 스님이 20년 넘게 소장해 온 것이다.

지진희 씨는 "사찰에서 마음 편히 지내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게 돼 기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에서 금속디자인을 전공한 지진희 씨는 이 작품을 직접 표구할 생각이다. 또 대장금 촬영이 끝난 뒤에도 틈틈이 내소사를 방문해 불교와의 인연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성희 기자

마당놀이 '이춘풍' 공연

12월 14일까지 국립극장

극단 미추의 마당놀이 '이춘풍(김지일 극본, 손진혁 연출)'이 11월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서울 남산 국립극장 마당놀이 전용극장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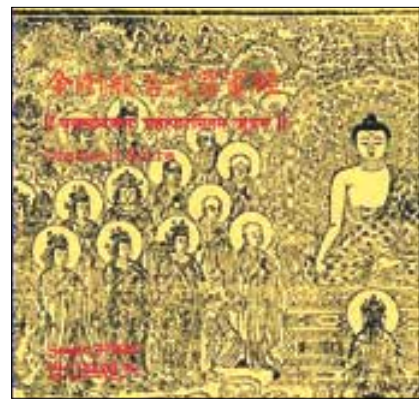
마당놀이 이춘풍은 여색에 빠져 재산을 탕진한 이춘풍이 슬기로운 아내로 인해 난관을 극복한다는 이야기다. '마당놀이 3인방'이라 불리는 윤문식, 김성녀, 김종업 등이 각각 바람둥이 이춘풍, 이춘풍의 처, 재단꾼으로 출연한다. 또 불교음악가로 알려진 작곡가 박범훈씨도 이번

마당놀이에 참여했다. 극단 미추의 박현숙 팀장은 "오랫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당놀이를 가장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관람석을 약 2000석으로 조정했다"고 이번 마당놀이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공연은 화-금요일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3·7시, 일요일 오후 1·5시에 관람 가능하다. (02)747-5161



◇마당놀이 '이춘풍'의 출연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진 왼쪽 네 번째부터 김성녀, 윤문식, 김성애, 김종업씨.

한-인 선율바탕 금강경 음악화



김진목씨, 퓨전명상음반 출시



로 이번엔 새음반 '금강반야바라밀경'을 내놓은 작곡가 김진목씨(52·사진). 이 음반은 한반도에 불교를 전한 아유타국의 허황후가 금관가야의 황후가 되면서 겪는 인간적 고뇌를 불심으로 극복하는 과정을 표현했다. 특히 2장 '다이아몬드 수트라'는 김진목씨가 불교음악을 하게된 계기를 엮어낸 성공 스님의 독경 소리를 듣고 '썩기 프렌즈'가 즉석 연주를 한 것. 여기에 등장하는 인도 악기도 다양하다. 반수리(대나무 통소)를 비롯해 타블라(북), 하모니움(손풍금), 사르드(기타), 타코(인도 언 타악기) 등의 인도악기에 한국 전통악기인 아쟁이 환상의 하모니를 연출해 낸다. (011)9196-2707

◇'금강반야바라밀경' 앨범 자켓 사진.
"한국과 인도의 선율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음악화 한 것입니다. 금강경의 독송에 맞도록 음운이 짜여져 있어 스님들도 음악을 틀어놓고 독송할 수 있지요."
한국과 인도의 월드 퓨전 그룹 '썩기 프렌즈(Sangeat Friends)'의 '아유타 시리즈' 완결편으

동자상 70여점 특별공개 청주박물관, 도록도 발간



◇목조연봉동자상

동자상이 주는 감동은 그들의 얼굴에 있다. 그래서일까, 불교미술에서 동자상은 항상 주요 소재로 등장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에 동자상(童子像)을 모아 엮은 도록 <불교동자상>(출판사)은 사찰의 대웅전이 아니라 명부전이나 나한전 한 칸에 외롭게 놓여졌던 동자상의 '복권'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동자상은 사실 예술적 가치만으로는 눈에 띄는 대상이 아니다. 나무와 흙 등 흔한 재료로 크기도 다른 불상에 비해 소규모이며, 세련미와 긴장감 같은 미적 요소도 좀처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점 티 없이 맑고 순수한 천진불심이 느껴진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조각에 견줄 수 없는 감동을 준다.

이 책에는 <화엄경> <아함경> <대반열반경> <삼국유사> 등 우리나라의 고대문헌과 불교의 원시경전을 비롯해 신라시대의 불상과 고려 불화에 등장하는 2백16점의 다채로운 동자상이 실려 있다. 국립청주박물관은 이 가운데 '목조연봉동자상', '목조명부동자상', '목조기사동자상' 등 70여점을 공개하는 특별전을 11월 23일까지 연다. (043)255-1632. 김주일 기자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Btv <ch 32>
06:25 선형 366일	19:11 목연 스님의 시와 사랑
08:55 우리들의 찬불가	20:11 12:00 향토음식기행 전통의 손맛
11:10 행복스튜디오	21:11 12:50 한마음선원 음악회
15:05 음악의 마을	22:11 12:50 충성 성불하시시오
16:45 토크니 동산	23:11 16:45 하재봉의 영화산책
19:00 저녁종합뉴스	24:11 09:20 외국인 스님의 영어법문
20:05 다시 듣고싶은 노래	25:11 19:30 수진 스님의 화엄경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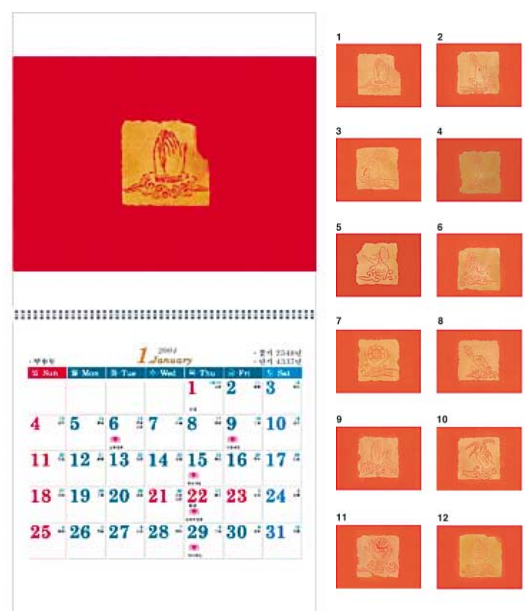
아이리ajt

- 불교방송: > 토크니 동산(11월 26일 16:45-17:00)=어린이 포교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용스님이 진행하는 어린이 프로그램. 26일 방송에서는 우리 동시를 어린이가 낭독하는 '문수와 음악의 동시산책', 옛 동요를 듣고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 등으로 꾸며진다.
- 불교텔레비전: > 목연 스님의 시와 사랑 (11월 19일 09:10-10:00)=후안 라몬 히메네스의 '나는 내가 아니다', 목연 스님의 '흐를 있는 비법' 등의 시(詩)와 함께하는 시간이다. 자신의 존재를 안에 가둬버리는 인간의 나약함과 자기안에 감춰진 다양한 모습들을 사랑하라는 내용.

2004년을 준비하는 불자님들의 현명한 선택...



주문전화: 02)732-1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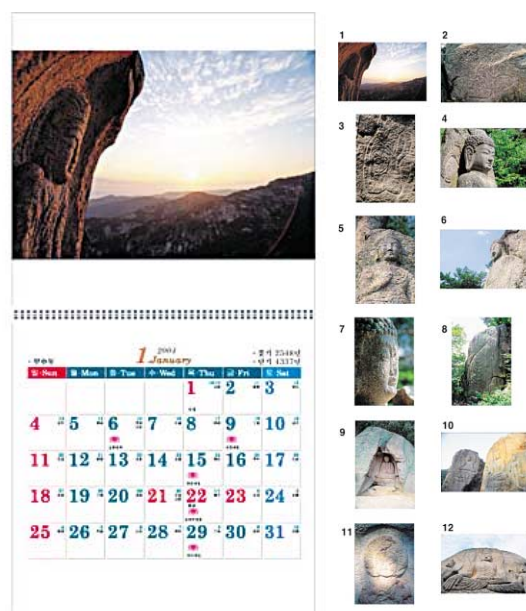
전각 수인(手印) - 관세음보살 42수인

- ▶ 규격: 310mm x 310mm 13매
- ▶ 지질: 스노우와이트지
- ▶ 상호란: 31cm x 7cm
- ▶ 시찰 및 단체명 무료 인쇄



전각 금강경

- ▶ 규격: 310mm x 310mm 13매
- ▶ 지질: 스노우와이트지
- ▶ 상호란: 31cm x 7cm
- ▶ 시찰 및 단체명 무료 인쇄



석불(石佛)

- ▶ 규격: 310mm x 310mm 13매
- ▶ 지질: 스노우와이트지
- ▶ 상호란: 31cm x 7cm
- ▶ 시찰 및 단체명 무료 인쇄

불자들의 필수품 2004년 불교 다이어리북 출시!!

매일매일 음식, 간지, 불교영언어 소개되고, 절어가는 날이 표시되어 편리한 불자들의 신앙용품.



향년 종에서 행해가 나뉘, 불교 다이어리북에서는 불교의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2004년 불교 다이어리북
▶ 색상: 곤색, 자주, 외색 ▶ 단채형 고급인쇄 -100권 이상
▶ 가격: 각권 7,000원

인터넷 마할 www.mahamall.co.kr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